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3호 [루게 제25031호] 주제 104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
를 관람하시었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양건동지, 리일환동지,
전용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 인민군장
병들, 군대와 사회의 예술단체
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게 된
출연자들의 가슴가슴은 청년
들을 기증한 전우로, 최후승
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부대로 불려주시고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
려가도록 따듯이 보살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심으로
하여 뜨겁게 끓어번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관
람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이
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
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소합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실화시와 남성독창 《금방석》, 제단
《청춘의 이름》, 하모니카와 혼성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혼성2중
창 《우등불》, 어은금독주와 방창 《젊음
은 금행렬차》, 남성기타5명창 《우리
앞날 밝다》, 국이악기 《500만의
신념》,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
으로》, 선동과 독연 《청년혁명
학교》, 가무와 민족기악3중주 《우리
민족 제일일세》, 혼성중창이야기 《체육
열풍종다》, 선동극 《천백배로 복수하리
라》, 혼성중창 《전선행렬차》, 여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북과 노래 《해안포
병의 노래》, 시이악기 《위대한 태양의
품》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제일
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청년강
국건설의 만년기쁨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과 이 땅위에 청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
품모를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대
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청년
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
이라는 확신과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
고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열혈청춘들의 전투적기백과 랑만을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70년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
세운 력사라는것을 보여준
공연,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
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점짜리 공연, 자신께서 청년
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담
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공
연, 지금까지 본 예술선전대공
연중에서 최고의 공연이라고
거들거들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언제나 승리의 한
길만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우
리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
관을 이겨내고 혁명의 전취물
과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
왔기때문이라고 감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의 선봉에서 전격로 열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와 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
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상에
도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최
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500만 청
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소합창 《조선청년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태양의 품속

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축부대로 억세게 자라고있는
선군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을 파시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러져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
예술선전대원들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선군청년문화를 창조하고있는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는 우리 당의 마이크, 나팔수와 같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본자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청년들의 사상교양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문제들을 취급한 기쁨진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할데 대한 과업들과 청년중앙예술선전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루적인 예술활동을 맹렬히 벌임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모든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당중앙과 사상과 습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을 맞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9일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들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참가 인사들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뜨거운 흥도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 숭유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과 나이제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과 이브라힘 만투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8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나이제리아 령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령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8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의의 정을 표시하였다. 9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는 주제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공화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짐없는 그리움과 흥도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계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군중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불후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김일성총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장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교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김일성, 김정일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재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경축 제1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들 일떠세우시였으며 한없이 고매한 덕망과 정력적인 령도로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앞길에 차넘치는 영원한 태양의 축복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에서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탄생 67돐을 맞이하였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 이 이름 조용히 불려만 보아도 우리 공화국의 상징자, 명도자이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승업해지는 마음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인민들의 물결에 실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뵈고싶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이 닿아서인가 대인수령 빛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돌대문은 활짝 열려져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안겨온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이었다.

정진한 마음을 안고 불멸의 태양상을 우러를수록 공화국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저절로 솟아올랐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차넘치는 절세위인들의 환하신 웃음이 태양의 축복이 되어 쏟아져내리듯 유난히도 밝은 햇빛이 성지의 곳곳마다에 파사되어 넘쳐있었다.

그 파사로운 햇빛을 받아서인가 흥초와 방울국화, 일일초를 비롯한 갖가지 꽃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곳곳에 아름답게 피어나 화려한 꽃무단을 펼치고있었다.

백초나무, 천나무, 종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불어오는 9월의 선들바람에 설레이고있었다.

하지만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은 향기를 풍기는 온갖 꽃들과 꽃잎이 설레이는 나무들이 펼친 수려한 풍치에만 심취되어있지 않았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느껴지는듯싶은 성지의 꽃송이들마다, 나무 그루들마다, 맑고 푸른 하늘의 한결의 구름과 가벼운 바람결조차도 태양조선의 자랑스런 역사를 소중히 전해주는것만 같아 누구나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이런 숭엄한 감정이 세계까지 울리는 속에서 우리는 손녀의 손목을 잡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말 드리고 나서서 만경대구역 장군 1 동굴 투쟁유언을 만났다.

수십년새월 사회주의제도를 지켜 조선인민내무군 군복을 입었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어머니 우리 조국의 풍속을 사랑하며 살아온 이 나라의 공민입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



고보니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못 전디게 솟아올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오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상공에 펼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았다.

공화국기발은 우리 공화국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행로를 뜨겁게 전하여주고있었다.

여기저기보던 강도 일제의 총칼밑에 신음하며 그 이름마저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였다.

바로 이러한 조선이 어떻게 되어 위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었는가.

항일의 혈전전투를 헤치여 조국을 찾아주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워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 결코 오늘날의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 37(1948)년 9월 9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그것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주체의 나라로 솟아오르고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드림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인민으로 되었음을 알리는 획기적 사변이었다.

혁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위용을 높이 펼치며 남들이 보았듯이 이 땅우에 부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백두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원수들을 짓밟게 하시던 백두산청년장군,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계「최강」을 펼치던 미제의 대결전에서 조국의 존엄을 지켜주신 민족의 은인, 이원위원을 지르므로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이발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끓어치고있었다.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돌아보며 우리 조국의 백승의 전통이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된 력사의 나날들을 가슴뜨거이 돌이켜보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물러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

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을 하지 않고서는 당과 국가건설을 제대로 할수 없을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꿈꿔나갈수도 없다는것이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헤치신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장깊이 간직하신 철석같은 신념이요 의지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의 앞길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군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라고 근엄히 교시하시며 나라가 강해야 인민들의 행복

한 생활도 담보할수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으신 선군혁명업적을 돌이켜보는 우리는 대한수령을 옹위하여 서있는 군기수들을 형상한 군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군상들앞에 서있느니라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이 류달리도 우리의 눈길에 머물렀다.

조국보위초소를 지켜 선 남다른 영애와 긍지를 안고 태양의 성지를 찾아온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니 혁명의 총대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받들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이 나라의 단장병들의 불타는 충정이 안겨와 가슴후더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다 바쳐 지켜주고 빛내여주시는 귀중한 공화국을 결사보위할 맹세를 안고 찾아오는 인민군군인들의 대렬이 끊길줄몰랐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총정의 맹세를 다지는 사람들이 어찌 인민군군인들뿐이라.

우리는 각계층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뜻깊은 9월의 하늘가에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진실하게 미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선군시대를 빛내일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마다에 필요한

마감건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었다는 걸의물 미봉는 동평양금속건조공장의 리금성동무,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못 잊어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헤아리시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휴식터들을 훌륭히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어제날 병사시절처럼 혁명의 꽃을 계속 피어나가겠다고 하는 학광구역 통일거리 2동의 특유영예군인 리광성동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한 자랑스

위대한 수령님들께 아뢰이고 우리 조국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날것을 다짐하는 평안남도 안주시 은덕고급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단위로 혹은 개별적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열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인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 일떠세울 불타는 맹세와 당찬건 일흔들의 경축대회장에 멋있게 들어선 젊은 의지가 비껴있었다.

태양의 성지에서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보내며 심장으로 더치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진정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은혜로운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늘 가슴에 안고 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의 세계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드는 길에서 천만군인이 당찬건 일흔들을 금지롭게 마중해가며 조국땅 어디에서나 자랑찬 노력적선물들을 마련해가고있다 생각하니 보다 위창찬한 우리 조국의 매일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오늘날 환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축복해주신다.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즐거우게 흐르고 파사로운 햇빛이 온 누리를 밝게 비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확신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들 전투에서 이끌고계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글 본사기자 림 정 호
사진 본사기자 림 학 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 경축연회 진행

【평양 9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 경축연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이 후손한테 부락할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연회에는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비전향장기수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제일본조선인속하단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주조선선영양지부 대표가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

부부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연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근로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은 온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의 함흥색공화국기가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로 장엄하게 오르른 그날로부터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인무궁한 영광을 드리었다.

공화국의 력사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가렬히결한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건설,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매순간을 아로새겨온 위대한고도 공지높은 력사이라는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젊음으로 약속하는 우리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으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 아름다운 매일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국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

당기 위하여 힘차게 씩씩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를 받들어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무궁토록 강성번영할것이며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통일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운명이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병을 축인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성번영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대성산 혁명렬사릉, 신미리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맞으며 9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들이 력사릉들과 력사묘에의 화환진정에 놓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화환들의 덩어리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력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들이 띄어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력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력사릉들과 력사묘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따췌끼스스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두 산 배

따 췌끼스스탄 공화국 대통령 에 모 말 리 라 흐 몬 각 하

나는 따췌끼스스탄공화국 국경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4(2015)년 9월 9일 평 양



대성산 혁명렬사릉에 화환 진정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간직하고 총대로 한생을 빛내인 혁명가

혁명렬사 류경수동지의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우리 혁명이 닦은 울린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승리와 영광의 년표를 아로새겨온 그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투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써온 열혈투사, 참된 혁명가들의 영웅적취원이 글문자로 새겨져있다.
혁명렬사 류경수동지의 한생도 수령결사옹위의 모범으로 빛나고있다.

일제침략의 암담한 시기였던 주체 4(1915)년 9월 9일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혁명에 참가한 때로부터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혁명가의 한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생애는 혁명가는 어떤 신념을 지니야 하며 혁명가의 삶은 무엇으로 하여 값높은가를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경수동지를 추억하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두고 보면 그때 나는 언제나 그 전열에 류경수와 같은 사람들이 세우곤 한다. 자기 수평이나 지도자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한생을 끝까지 걸어가는데서 류경수는 만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신념은 혁명가의 중요한 특징이다. 뿌리를 떠나 거목을 생각할 수 없듯이 신념을 떠난 혁명가의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의 운명을 뼈저리게 체험한 류경수동지는 혁명적신념을 소유한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워지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남달리 학력학에 몰두한 류경수동지에게 있어서 어진신념의 추위처럼 나무뿌리를 지고 장애를 때마다

사람학교 창문엔 푸르고있으나 나무가치를 들고 교원이 칠판에 쓰는 글을 열심히 따라쓰며 글을 익히던 서글픈 희극이었다. 애국의 뜻을 품고 절연히 투쟁에 나섰으나 울바른 령도자가 없어 10대에 벌써 갑갑 삼아끼치 하면서 모진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류경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훌륭한 혁명가가 성장할수 있었다.

동년월전선투쟁후인 주체 22(1933)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린 나이에 혁명투쟁에 나선 류경수동지를 친히 만나시어 그에게 어린 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어린 혁명가, 이 고귀한 칭호를 받아 안은 류경수동지는 민족의 전진적위인인 위대한 수령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해갈 불같은 맹세를 굳게 다지고 또 다지었다. 그 맹세를 지켜 류경수동지는 항일전에 참가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한목숨처럼 보외하는 것을 자신의 첫해가 본분으로, 제일성명도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동지의 신념안건을 위해 한몸이 그대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전투 성과를 꼭 기억하고 친보신일대에 돌진할때의 일이었다.

적들은 그때 친보신과 주천지구에서 《토벌》무렵을 집결하여 혁명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하려고 획책하였다. 류경수동지는 사령부로부터 출몰하는 적들의 위협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용근 사출운동으로 변칙히 마지막 못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싸움을 도맡아나섰다.

주체 30(1941)년 이른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내에서 활동하

는 소부대들의 사명을 지도하기 위해 류경수동지가 지휘하는 중대와 함께 백두산일대에 나오신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류경수동지에게 어느 한 지점에 가서 변혁원을 만나고올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류경수동지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사령부가 있던 곳은 온통 적의 불무지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마지막 시간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류경수동지는 이동안에 우리가 저 불무지가 있는 사령부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위험속에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실것이라고 하면서 사령부원장까지를 향해 주지않고 기다려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사령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없다는 선뜻 내릴수 없는 결심이었다.

그 근저에서 류경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가 남겨놓은 신념을 만날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신념을 간직하면 어떤 시련과 난관도 무소불위하지 않는다는것을 길이 새겨주고있다.

우리가 믿을 곳은 사령관동지의 품밖에 없다!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우리는 조국의 해방도 이룩할수 있고 자기자신의 운명도 개척할수 있다! 사령관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것이 바로 류경수동지의 심장속에 온갖 자리잡은 신념이었다.

이런 투철한 혁명신념을 세제화한 절결한 혁명투사였기에 류경수동지는 한때 부대의 참모장까지 하다가 신념을 지버리고 적들에게 투항하여

술장사공으로 전락한 변절자를 만났을 때 그 누구보다 격분은 금치 못해 하며 주저없이 제포하여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던것이다.

류경수동지는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정당, 전국사립에서 모친 우리 혁명투쟁을 역력적으로 다지는 길에서 지출수 없는 자비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주체 37(1948)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류경수동지를 몸가져 부르시어 당국편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맡아할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었다.

우리 근대가 이제는 당국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정규부대로 강화발전되고있는 기쁨은 류경수동지의 가슴을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정규적인 당국부대를 조직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류경수동지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한강하게 투쟁하여 높은 몇몇이 걸려야 한다는 당국명양성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도 하시는데로 설득당연에 훌륭히 수행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당국적인 당국부대를 조직한다는것은 말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자양분은 신념의 믿음과 사랑이다.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에는 물론 가버릴것같은 전과의 그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에 크나큰 믿음과 다정한 사랑을 기울이시었다.

류경수동지가 생전에 늘 간수하고 다녔던 수첩에는 《그를 떠나 못할 이》라는 자작시가 정히 적혀져있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자양분은 신념의 믿음과 사랑이다.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에는 물론 가버릴것같은 전과의 그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에 크나큰 믿음과 다정한 사랑을 기울이시었다.

류경수동지가 생전에 늘 간수하고 다녔던 수첩에는 《그를 떠나 못할 이》라는 자작시가 정히 적혀져있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의 맥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의 체취 내 몸을 덮혀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맥박불굴의 혁명투사로 값높은 인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한생의 좌우명이었다.

주체 39(1950)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울에방학 전에 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당국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1950년 7월 28일 근위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관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선군혁명병대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날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류경수동지는 우리 나라의 첫 당국부대지휘관으로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였습시다.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귀하었던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수령님의 작전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관리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쳤습시다.》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빛내이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전 기상이면 그 함축적공화국이 9월의 하늘가에 새겨져 펴벌린다.

바라볼수록 《창공에는 우리 조국 푸르도록 나뭇고》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를 가슴에 미쳐와 이 절이 못한 경적에 휩싸이게 되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장명령에 나날이 부장명령을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의 항후색공화국가는 과연 무엇에 떠받들려 저 멀리 세계의 하늘을 날아갈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과 나!
오늘의 시대는 매 공민을 이런 시점에 세워준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누구 나 몇몇이 대답할지를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부름을 심정에 새겨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빛내이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전 기상이면 그 함축적공화국이 9월의 하늘가에 새겨져 펴벌린다.

바라볼수록 《창공에는 우리 조국 푸르도록 나뭇고》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를 가슴에 미쳐와 이 절이 못한 경적에 휩싸이게 되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장명령에 나날이 부장명령을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의 항후색공화국가는 과연 무엇에 떠받들려 저 멀리 세계의 하늘을 날아갈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과 나!
오늘의 시대는 매 공민을 이런 시점에 세워준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누구 나 몇몇이 대답할지를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부름을 심정에 새겨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빛내이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전 기상이면 그 함축적공화국이 9월의 하늘가에 새겨져 펴벌린다.

바라볼수록 《창공에는 우리 조국 푸르도록 나뭇고》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를 가슴에 미쳐와 이 절이 못한 경적에 휩싸이게 되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장명령에 나날이 부장명령을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의 항후색공화국가는 과연 무엇에 떠받들려 저 멀리 세계의 하늘을 날아갈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과 나!
오늘의 시대는 매 공민을 이런 시점에 세워준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누구 나 몇몇이 대답할지를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부름을 심정에 새겨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빛내이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전 기상이면 그 함축적공화국이 9월의 하늘가에 새겨져 펴벌린다.

바라볼수록 《창공에는 우리 조국 푸르도록 나뭇고》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를 가슴에 미쳐와 이 절이 못한 경적에 휩싸이게 되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장명령에 나날이 부장명령을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의 항후색공화국가는 과연 무엇에 떠받들려 저 멀리 세계의 하늘을 날아갈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과 나!
오늘의 시대는 매 공민을 이런 시점에 세워준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누구 나 몇몇이 대답할지를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부름을 심정에 새겨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빛내이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전 기상이면 그 함축적공화국이 9월의 하늘가에 새겨져 펴벌린다.

바라볼수록 《창공에는 우리 조국 푸르도록 나뭇고》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를 가슴에 미쳐와 이 절이 못한 경적에 휩싸이게 되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장명령에 나날이 부장명령을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의 항후색공화국가는 과연 무엇에 떠받들려 저 멀리 세계의 하늘을 날아갈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과 나!
오늘의 시대는 매 공민을 이런 시점에 세워준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누구 나 몇몇이 대답할지를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부름을 심정에 새겨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빛내이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전 기상이면 그 함축적공화국이 9월의 하늘가에 새겨져 펴벌린다.

바라볼수록 《창공에는 우리 조국 푸르도록 나뭇고》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를 가슴에 미쳐와 이 절이 못한 경적에 휩싸이게 되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장명령에 나날이 부장명령을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의 항후색공화국가는 과연 무엇에 떠받들려 저 멀리 세계의 하늘을 날아갈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과 나!
오늘의 시대는 매 공민을 이런 시점에 세워준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누구 나 몇몇이 대답할지를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부름을 심정에 새겨

몸과 마음 다 바쳐 길이 빛내이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전 기상이면 그 함축적공화국이 9월의 하늘가에 새겨져 펴벌린다.

바라볼수록 《창공에는 우리 조국 푸르도록 나뭇고》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이 저를 가슴에 미쳐와 이 절이 못한 경적에 휩싸이게 되는 이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빛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장명령에 나날이 부장명령을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긍지로 가슴 불태우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의 항후색공화국가는 과연 무엇에 떠받들려 저 멀리 세계의 하늘을 날아갈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과 나!
오늘의 시대는 매 공민을 이런 시점에 세워준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누구 나 몇몇이 대답할지를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부름을 심정에 새겨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있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자력갱생의 길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로 조국을 빛내이는 사업소의 연혁사를 통한 교양이다.

초급당위원회는 하루평균 7세대의 실험집을 조립하여 평양방정기를 수송고 자기들이 건설한 방정기리 실험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드러운 영평을 잊지도 못하도록 연혁사교실장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자력갱생선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교양은 더욱 필요하였다. 통안거리건설사업소 수직부대 운반차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였는데 크게 기여한 로망원이 들려주는 실험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체면을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있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자력갱생의 길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로 조국을 빛내이는 사업소의 연혁사를 통한 교양이다.

초급당위원회는 하루평균 7세대의 실험집을 조립하여 평양방정기를 수송고 자기들이 건설한 방정기리 실험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드러운 영평을 잊지도 못하도록 연혁사교실장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자력갱생선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교양은 더욱 필요하였다. 통안거리건설사업소 수직부대 운반차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였는데 크게 기여한 로망원이 들려주는 실험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체면을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있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자력갱생의 길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로 조국을 빛내이는 사업소의 연혁사를 통한 교양이다.

초급당위원회는 하루평균 7세대의 실험집을 조립하여 평양방정기를 수송고 자기들이 건설한 방정기리 실험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드러운 영평을 잊지도 못하도록 연혁사교실장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자력갱생선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교양은 더욱 필요하였다. 통안거리건설사업소 수직부대 운반차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였는데 크게 기여한 로망원이 들려주는 실험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체면을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있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자력갱생의 길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로 조국을 빛내이는 사업소의 연혁사를 통한 교양이다.

초급당위원회는 하루평균 7세대의 실험집을 조립하여 평양방정기를 수송고 자기들이 건설한 방정기리 실험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드러운 영평을 잊지도 못하도록 연혁사교실장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자력갱생선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교양은 더욱 필요하였다. 통안거리건설사업소 수직부대 운반차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였는데 크게 기여한 로망원이 들려주는 실험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체면을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있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자력갱생의 길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로 조국을 빛내이는 사업소의 연혁사를 통한 교양이다.

초급당위원회는 하루평균 7세대의 실험집을 조립하여 평양방정기를 수송고 자기들이 건설한 방정기리 실험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드러운 영평을 잊지도 못하도록 연혁사교실장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자력갱생선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교양은 더욱 필요하였다. 통안거리건설사업소 수직부대 운반차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였는데 크게 기여한 로망원이 들려주는 실험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체면을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있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자력갱생의 길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로 조국을 빛내이는 사업소의 연혁사를 통한 교양이다.

초급당위원회는 하루평균 7세대의 실험집을 조립하여 평양방정기를 수송고 자기들이 건설한 방정기리 실험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드러운 영평을 잊지도 못하도록 연혁사교실장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자력갱생선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교양은 더욱 필요하였다. 통안거리건설사업소 수직부대 운반차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였는데 크게 기여한 로망원이 들려주는 실험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체면을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참다운 애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면 남구주력건설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있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자력갱생의 길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바로 기념비적창조물건설로 조국을 빛내이는 사업소의 연혁사를 통한 교양이다.

초급당위원회는 하루평균 7세대의 실험집을 조립하여 평양방정기를 수송고 자기들이 건설한 방정기리 실험집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드러운 영평을 잊지도 못하도록 연혁사교실장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자력갱생선구자들의 실험을 통한 교양은 더욱 필요하였다. 통안거리건설사업소 수직부대 운반차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속도를 높였는데 크게 기여한 로망원이 들려주는 실험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체면을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자력갱생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